

20 photo by —
23 — joowo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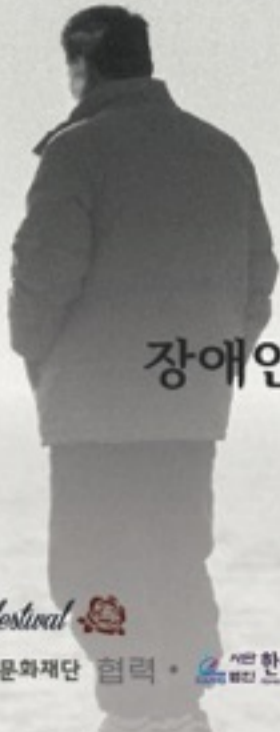
Mädchenlieder
op.103 소프라노 이진주
메조소프라노 신성희

Spanische
Liederspiel
op.74 op.138 테너 김지민
베이스 윤종민

Minnespiel
op.101 피아노 이고은 김미아
해설 장일범 류태형

추모의 힘의망

음악이란 더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칼릴지브란



서울시립북부 장애인 복지관 3층 강당
08.28.¹
월.2PM
티켓 | 전석 무료

거암아트홀
09.06.²
수.7PM
티켓 | 인터파크 S석 5만원 A석 3만원
장애인 및 가족 무료

살롱 라 몽파뉴
12.07.³
목.7PM
티켓 | 전석 10만원
장애인 및 가족 무료
문의 | 010-2271-3851

주최 주관 · festival
후원 · 서울문화재단 협력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관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관 SOCIAL FOCUS

본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재단의 [2023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추진됩니다. Seoul Mecenat Initiative

인사말


“늘 따뜻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J festival society는
‘늘 따뜻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라는 이상적 목표를 실현해 내고 싶은
공연 전문 기획사입니다.

우리 문화 예술 속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나눔’이라는
개념에서 예술의 본질의 사명감을
더하여 우리 인간과 예술의 가치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쉽’이 필요한
어떠한 시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직한 예술혼이 담긴 다양한 기획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더욱
가까운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진주 드림 J festival 

프로그램 program

08.28.¹
월.2PM

서울시립북부
장애인 복지관 3층 강당

09.06.²
수.7PM

거암아트홀

1부

Mädchenlieder op.103

< 소녀들의 노래 > with piano 이고은

4 duets | Sop 이진주 M.Sop 신성희

- 1 Mailied < 5월의 노래 >
- 2 Frühlingslied < 봄의 노래 >
- 3 An die Nachtigall < 종달새에게 >
- 4 An den Abendstern < 저녁별에게 >

Minnespiel op.101 no.3 no.8

< 사랑극 > with piano 김미아

3 Ich bin dein Baum, o Gärtner
< 나는 당신의 나무, 오 정원사 >
M.Sop 신성희 Bass 윤종민

8 So wahr die Sonne scheint
< 이토록 태양이 빛날 때 >
Sop 이진주 M.Sop 신성희
Ten 김지민 Bass 윤종민

2부

Spanische Liederspiel Op.138

; 10 songs < 스페인풍 노래극 >
with 4händs piano 이고은 김미아

1 Vorspiel < 전주곡 >
피아노 이고은 김미아

2 Tief im Herzen trag' ich Pein
< 가슴속 깊은 나의 아픔 >
Sop 이진주

3 O wie lieblich ist das Mädchen
< 오 이토록 사랑스러운 소녀 >
Ten 김지민

4 Bedekt mich mit Blumen
< 꽃으로 덮인 나 >
Sop 이진주 M.Sop 신성희

5 Flutenreicher ebro – Romanze -
< 넘쳐흐르는 에브로강 >
Bass 윤종민

6 Intermezzo < 간주곡 >
피아노 이고은 김미아

7 **Weh, wie zornig ist das Mädchen**
< 이이, 소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
Ten 김지민

8 **Hoch, hoch sind die Berge**
< 깊고 깊은 계곡 >
M.Sop 신성희

9 **Blaue augen hat das Mädchen**
< 파란 눈동자를 가진 소녀 >
Ten 김지민 Bass 윤종민

10 **Dunkler Lichtglanz blinder Blick**
< 어두워지는 밝은 빛에 눈이 먼 >
Sop 이진주 M.Sop 신성희 Ten 김지민 Bass 윤종민

1부

Mädchenlieder op.103
< 소녀들의 노래 > with piano 이고은

4 duets | Sop 이진주 M.Sop 신성희

- 1 **Mailied** < 5월의 노래 >
- 2 **Frühlingslied** < 봄의 노래 >
- 3 **An die Nachtigall** < 종달새에게 >
- 4 **An den Abendstern** < 저녁별에게 >

Minnespiel op.101 no.3 no.6 no.8
< 사랑극 > with piano 김미아

3 **Ich bin dein Baum, o Gärtner** < 나는 당신의 나무, 오 정원사 >
M.Sop 신성희 Bass 윤종민

6 **O Freund, mein Schirm, mein Schutz!** < 오 친구여, 나의 우산, 나의 은신처 >
M.Sop 신성희

8 **So wahr die Sonne scheint** < 이토록 태양이 빛날 때 >
Sop 이진주 M.Sop 신성희 Ten 김지민 Bass 윤종민

2부

Spanisches Liederspiel op.74 no.5 no.8 no.9
< 스페인의 노래극 > with piano 김미아

5 **Botschaft** < 전령 >
Sop 이진주 M.Sop 신성희

8 **Es ist verraten** < 이것은 배신이다 >
Sop 이진주 M.Sop 신성희 Ten 김지민 Bass 윤종민

9 **Ich bin geliebt** < 나는 사랑했네 >
Sop 이진주 M.Sop 신성희 Ten 김지민 Bass 윤종민

Spanische Liederspiel Op.138
; 10 songs < 스페인풍 노래극 >
with 4händs piano 이고은 김미아

4 **Bedekt mich mit Blumen** < 꽃으로 덮인 나 >
Sop 이진주 M.Sop 신성희

6 **Intermezzo** < 간주곡 >

8 **Hoch, hoch sind die Berge** < 깊고 깊은 계곡 >
M.Sop 신성희

9 **Blaue augen hat das Mädchen** < 파란 눈동자를 가진 소녀 >
Ten 김지민 Bass 윤종민

10 **Dunkler Lichtglanz blinder Blick** < 어두워지는 밝은 빛에 눈이 먼 >
Sop 이진주 M.Sop 신성희 Ten 김지민 Bass 윤종민

12.07. 3
목. 7PM
살롱 라 몽파뉴

연주자 프로필 profile



소프라노 — 이진주

계원예술고등학교 졸업
독일 요하네스 브람스 음악원
수석 졸업

오페라 리골레토 / 사랑의 묘약 /
라보엠 주역 출연

소니 클래식 한국 초연
슈만 가곡 시리즈 최초 발매
메인 소프라노 참여

현 제이 페스티벌 대표

계원예술 중학교
계원예술 고등학교 출강



메조소프라노 — 신성희

추계예술대학교 졸업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수료

이탈리아 테라모 국립음악원
성악과 및 프로시노네 국립음악원
오페라과 졸업

마리오란짜 / 레온카발로 등
국제 콩쿠르 10여 회 이상 수상

오페라 나비부인 / 카르멘 등
다수 오페라의 주역 및
베르디 / 모차르트 레퀴엠 외 다수
오라토리오 솔리스트로 공연

현 추계예술대학교 강사
인천예고 강사
국립 오페라단 솔리스트



테너 — 김지민

인천예술고등학교 졸업
이탈리아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성악과 졸업

루마니아 국제 성악콩쿠르
International Voice Competiton
"Hariclea Darclée" 특별상

이탈리아 국제 성악 콩쿠르
Concorso lirico
"Alfredo Giacomotti" 입상

현 인천예술고등학교
성악과 출강
라벨라 오페라단
로열 아트 앤 뮤직 소속 성악가





베이스 — 윤종민

한양대학교 성악과 졸업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독일 레겐스부르크 시립극장
 베이스 주역 솔리스트 역임

독일 뮌헨 / 뮌스터 / 데트몰트 /
 하이델베르크 등
 유수의 오페라하우스에서
 베이스 주역 솔리스트 출연
 독일 슈투트가르트 / 프랑크푸르
 트 / 만하임 / 슈트라우빙 등
 독일 전역을 중심으로 오라토리오
 베이스 솔리스트 출연

소니 클래식 한국 초연
 슈만 가곡 시리즈 최초 발매
 메인 솔리스트 참여
 현 한양대학교 성악과 출강



피아노 — 이고인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가곡 반주과 졸업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성악 코치과 졸업

Internationale
 Hugo-Wolf-Akademie
 장학생으로 참여
 스위스 Festival Flims/Waldhaus
 장학금 수여 및 참여
 독일 장학 재단 Yehudi Menuhin
 LMN Mannheim 연주자

소니 클래식 한국 초연
 슈만 가곡 시리즈 최초 발매
 메인 피아니스트 참여
 현 추계예술대학교
 계원예술고등학교 출강
 슈베르트 협회 / 한국반주 협회 회원



피아노 — 김미아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독일 하이델베르크
 교회음악대학 피아노-가곡반주과
 (KA) 최고점수 졸업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성악코치과
 (Diplom) 최고점수 졸업

독일 하이델베르크극장
 객원 음악 코치 역임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성악 코치 강사 역임

현 성악 전문반주자
 음악 코치로 활동 중

2023 제이 페스티벌 슈만 시리즈
 메인 반주자로 활동



해설 | 장일범

음악평론가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성악과 대우교수
 공연기획사 예랑 대표

CPBC 평화방송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진행

한경 아르떼 TV '아르떼 라르고' MC
 구리아트센터 '장일범의 낭만음악회' 진행
 강남심포니 클래식품격 콘서트 진행



해설 | 류태형

음악 칼럼니스트
 현 대원문화 재단 전문위원
 현 월간 SPO 편집위원
 중앙일보 음악 담당 객원기자 역임
 월간 '객석' 편집장 및 기자 역임

Mädchenlieder op.103

< 소녀들의 노래 >

1 Mailied < 5월의 노래 >

Pflücket Rosen, um das Haar
Schön damit zu kränzen,
Reihe dich, o junge Schaar,
Dann zu frohen Tänzen.

Freuet euch, so lang der Mai
Und der Sommer währet,
Nur zu bald sind sie vorbei
Und der Winter kehret.

Lange müßt ihr dann auf's neu
Bei der Lampe sitzen,
Und bei ew'gem Einerlei
Saurer Arbeit schwitzen.

장미꽃을 따요.
머리를 예쁘게 치장하기 위해
가지런히, 오 어린 발,
그러고 나서 행복한 춤을 춰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기다리던 봄이에요.
여름은 지속되고,
곧 다시 빠르게 지나
그리고 겨울이 돌아와요.
오랫동안 그들은 다시금
새 램프에 앉아있어야 해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단조로움으로
지루한 일들로 땀을 흘리죠.

4 An den Abendstern < 저녁별에게 >

Schweb' empor am Himmel,
Schöner Abendstern!
Sieht im Glanzgewimmel
Jeder dich ja gern.

2 Frühlingslied < 봄의 노래 >

Der Frühling kehret wieder,
Und schmücket Berg und Thal;
Schon tönen rings die Lieder
Der süßen Nachtigall!

Wie steigt hoch die Sonne
In's Himmelblau hinauf,
Verbreitet Lust und Wonne
Auf ihrem weiten Lauf.

Es eilen Schaf' und Rinder
Der grünen Wiese zu,
Es blickt auf's Spiel der Kinder
Der Greis aus seiner Ruh.

봄이 다시 돌아오고,
산과 계곡은 예쁘게 화장을 하지.
이미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사랑스러운 종달새의 노래!
태양은 어떻게 저렇게 높이 오르는지,
푸른 하늘을 가르며.

기쁨과 환희를 드넓게 펼치며.
양과 소들을 푸른 초원으로 재촉하며,
그 반짝거림에 새롭게
어린이와 노인들도 안식한다.

Geh'n sie auf, geh'n nieder
Sie am Himmelsrand,
Keinen deiner Brüder
Schmückt ein solch Gewand.

3 An die Nachtigall < 종달새에게 >

Bleibe hier und singe,
Liebe Nachtigall!
Dein Gesang erklinge
Schmetternd überall.

Flur und Waldung lauschet,
Alles hört dir zu,
Nicht ein Blättchen rauschet,
Bleiben all' in Ruh.

Hör' ich recht, so brauset
Minder jetzt der Bach,
Da hier stille hauset,
Läßt sein Toben nach.

내 곁에 있어줘, 그리고 노래해,
사랑하는 종달새야!
이미 너의 노래는
여기저기 울려 퍼져 있구나.

초원과 숲이 귀 기울여 듣고,
작은 잎사귀도 바스락거림 없이,
모두 고요히 있어.
내 말이 맞는다면,
시냇물은 이보다도 작게 작게,
그리고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소란스러움을 멈추었어.

하늘에 높이 떠 있는 아름다운 별!
눈부신 모습은 늘 아름다워.
위아래로, 그리고 더 가까이 별들은 지평선에 닿고,
수도승 같은 모습이 아니야, 멋지게 치장한 듯해.

Minnespiel op.101 no.3 no.8

< 사랑극 >

no.3 Ich bin dein Baum, o Gärtner

< 나는 당신의 나무, 오 정원사 >

연인의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나무와 정원사에
빛대어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형용화시킨
약간 느린 템포의 서정적인 곡.

no.6 O Freund, mein Schirm, mein Schutz!

< 오 친구여, 나의 우산, 나의 은신처 >

당신은 나의 친구, 나의 우산, 나의 보석, 깊은 사랑을
통해 얻은 연인으로부터의 강한 안식과 깊은 위로를
조금은 무거운 언어와 깊은 선율로 노래하며 그안에
머물기를 절히 원하는 그 마음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조금 느리게 걷는 듯한 템포의 곡.

no.8 So wahr die Sonne scheint

< 이토록 태양이 빛날 때 >

이토록 태양이 빛나듯, 당신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내 곁에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 아름답고 애잔한 마음을 그저 아름다운
선율들로 노래하는 미디엄 템포의 혼성 4중창곡.

Spanisches Liederspiel op.74 no.5 no.8 no.9

< 스페인풍의 노래곡 >

5 Botschaft < 전령 >

재스민과 카네이션 꽃을 자신의 사랑의 전령이라 여기며, 그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빗대어 표현한 화려하고 빠른 템포의 여성 듀엣곡.

8 Es ist verraten < 이것은 배신이다 >

말로 하진 않지만, 연인에게서 느껴지는 거짓된 표현과 모습들을 보며 느끼는 안타까운 감정들을 보통 빠르기의 조금 경쾌한 것 같은 리듬들을 사용해 반어적으로 표현한 혼성 성악 4중창곡.

9 Ich bin geliebt < 나는 사랑했네 >

세상의 외면 속에서도 자신에게 다가왔던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빠른 템포로 격정적, 다이내믹하게 표현한 혼성 4중창곡.

Spanische Liederspiel Op.138

; 10 songs < 스페인풍 노래곡 >

1 Vorspiel < 전주곡 >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4핸즈의 피아노 연주곡. 138번 작품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작곡가의 심리상태가 집약되어 드러나는 곡.

선율의 진행은 빠르나 실제 템포는 빠르지 않고 짙은 화성의 도입부와 주선율의 리듬들이 열정과 혼란을 번갈아가며 강하게 느껴지는 곡.

한 곡 안에서 여러가지 감정을 말하듯 써 내려간 서사적 연주곡.

2 Tief im Herzen trag' ich Pein < 가슴속 깊은 나의 아픔 >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괴로움을 참지만 겉으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이 곡의 첫 번째 가사이다. 너무나 아프지만, 그것을 견딜 뿐 표현하거나 드러낼 수 없는 슈만 자신의 견뎌내기를 자조적으로 써 내려간 독백 형식의 느린 템포의 여성 솔로곡.

3 O wie lieblich ist das Mädchen < 오 이토록 사랑스러운 소녀 >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청년의 마음을 노래하는 남성 솔로곡.

4 Bedekt mich mit Blumen < 꽃으로 덮힌 나 >

사랑 앞에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남고 싶은, 그러나 현실은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을 마음을 노래한 격정적이며 드라마틱한 선율의 여성 듀엣곡.

5 Flutenreicher ebro -Romanze- < 넘쳐흐르는 에브로강 >

넘쳐흐르는 에브로 강가에서 슈만이 혼자 앉아 행복한 나의 그녀, 그 모든 시간에 함께이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노래 한 곡.

6 Intermezzo < 간주곡 >

전주곡에서 두드러졌던 리듬, 화성의 변화들이 여러 감정을 쏟아내는 혼란이 느껴졌다면, 간주곡에서는 조금 정돈된 듯한 차분함이 느껴지는 곡. 아마 슈만 자신의 감정을 곡 전반과 후반의 이야기로 나타내려 하는 듯하다.

차분히 단순하고 깊이 있는 화성으로 도입부를 시작하지만, 그 형태를 반복하며 조금씩 클라이맥스로 향하다 끝은 높고 맑은 단음정으로 조용하고 간결하게 마무리가 된다. 그 종지는 멜랑콜리가 아닌 희망인 듯하다.

7 Weh, wie zornig ist das Mädchen

< 이이, 소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

해석에서는 “화”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Weh는 (아픔) 고통이다. 고통받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 슈만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는 보통 빠르기의 짧고 강한 어조의 남성 솔로곡.

8 Hoch, hoch sind die Berge < 깊고 깊은 계곡 >

수분 가득 머금은 깊고 깊은 계곡의 위로에 기대어 아쉬움과 슬픔을 떠나보내는 깊고 서정적인 멜로디의 중음역대의 느린 여성 솔로곡.

9 Blaue augen hat das Mädchen

< 파란 눈동자를 가진 소녀 >

파란 눈동자를 가진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그녀를 생각하며 부르는 밝고 경쾌한 남성 듀엣곡.

10 Dunkler Lichtglanz blinder Blick

< 어두워지는 밝은 빛에 눈이 먼 >

“내게 있어 사랑은, 오직 당신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가는 고통입니다.”

이 곡의 주된 가사이다. 그러나 이곡의 멜로디는 분명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선율을 차곡차곡 쌓아, 파트별로 번갈아가며 부른 후 환희에 쌓인 듯한 화성으로 혼성 4중창이 함께 노래하며 클라이맥스를 끌어낸다. 분명 아름답지만, 분명 슬프기도 하다.

이 곡이 138번 작품의 주제곡이라 생각이 든다.

혼란, 아픔의 시간을 말하지만 작품 마지막 곡은 몽환적 아름다움의 환희를 상상케 하는 멜로디가 너무나 진하게 드러난다.

슈만의 ‘희망’은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힘들지만 그래도 그는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만 한 것으로 채워지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게 아닐까.

서울시가 2004년 설립한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 라는 목표 아래
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공연, 시각, 문학 등 장르예술과
청년, 장애예술인을 지원하여, 문화다양성을 확보하고 안정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17개의 공간을 운영하며, 서울의 대표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기업-예술단체 간 파트너십을 통한
창작·발표 지원을 위해 2012년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로 250여개의 예술 작품/프로젝트를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도 27개의 우수 예술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들과 함께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의 가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